

'국태민안의 염원, 화양산 황단'

진안역사박물관서 수당 이덕응 유물 특별기획전 개최

진안군 진안역사박물관에서 화양산 황단 100주년 기념 수당 이덕응 유물 특별기획전 '국태민안의 염원, 화양산 황단' 전시가 9일 오후 1시부터 흥삼축제 개막과 함께 열렸다.

진안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수당 이덕응과 관련된 고문서와 고서적(이아, 봉곡집, 아은집, 우암언행록 등), 호적표, 관보, 제문, 간찰, 전통제례상과 제기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전시된다.

수당 이덕응(1866~1949)은 전주이씨 선원계 덕흥대원군의 후손이자 충·효·열 삼강을 모두 갖춘 기운에서 태어났으며, 서울 남산골에서 출생하여 궁내부 장릉참봉 판임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내 낙향하여 김재 등에 머물다 1909년 즈음 진안 주천면 대불리에 이주·정착 하였으며, 지방유지 순정백 등과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화양도원을 대불리 개화마을에 열었다.

1922년에는 13도 도순감장에 임명되어 전국의 인재들에게 유교정신을 드높이고, 함일사상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 구국의 동량이 되었으며, 전라·충청지방의 문도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니 그 제자가 25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1919년 이덕응은 고종(광무황제)의 승하소식을 듣고 슬프고 분한 마음에 통곡하였으며, 3년 동안 매년 초하루와 보름에 화양산에 올라 제자들과 삼복차림으로 소리 내어 슬프게 울었다고 전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심을 바로잡고 기물어가는 국운을 만회하고자 황단 설단을 상소하고, 순종(융희황제)의 유언을 받아 천국(天國) 옥황상

제, 지극(地極) 공자, 인극(人極) 고종황제 등 삼극(三極)의 신위를 봉안하여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편안함을 염원하는 제례를 지냈는데, 이를 황단제라 한다.

황단제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번도 꺾이지 않고 명맥을 이어온 전국 유일의 황단제례행사로, 지난 9월 27일 화양산 정상 황단에서 100주년 기념 황단제가 이덕응의 제자·후손 및 유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이러한 수당 이덕응의 생애와 사상, 철학, 함일의지를 보여주는 부친 이희식의 동몽교관 교지와 모친의 증직영인 교지, 장릉참봉 임명장과 13도도순감장 임명장, 황단제와 화양도원 관련 문서 등이 전시된다.

이들 유물은 6.25 전쟁 시 대불리 마을 전체가 화재에 휩쓸린 가운데 가까스로 구해낸 소중한 유품 중 선별하여 전시된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24호로 지정된 이덕응 초상화 3점(금관조복입상, 유복좌상, 평복좌상)도 전시된다.

이들 초상화는 구한말 최고의 초상화가(어진화가)인 종2품 석지 채용신이 화양도원에서 4개월간 머물면서 1916년에 그린 것으로, 채용신의 작품 중에서 한 인물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린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져 역사적·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덕응은 유학자이자 항일우국지사인 연재 송병선, 석정 이정직의 문인으로서, 간재 전주 등과도 왕래하며 긴밀히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와 관련 송병선이 짓고 전우가



쓴 삼강려기, 연재 송병선 친필 유묵, 간재 전주 서집 등이 전시된다.

진안군은 오는 2020년 3월 8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수당 이덕응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보고, 화양산 황단과 이덕응 관련 유물들을 보존·전승해 온 이덕응의 후손과 제자, 황단보존회 등의 정신을 되새기고 재조명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에 대한 문의는 진안역사박물관(063-430-8085)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이 토요국악플러스 공연을 개최한다.

전통예술의 정수 선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서 12일 토요국악플러스 공연 열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전통예술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토요국악플러스 공연을 개최한다.

토요국악플러스 공연에서는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과 국악애호가들을 위해 국악 장르를 선정한 전통예술의 정수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은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예음관에서 펼쳐지며, 남도민요의 깊고 진한 성음의 맛을 익히며 연주로 풀어낸 기악중주 및-토리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故김수익 명무를 통해 정승된 무용 교방굿거리춤, 호남의 지평을 노래하는 가야금병창

호남가, 애뜻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사랑가, 나지막한 가야금산조 선율에 맞춰 감성적인 춤사위를 풀어내는 산조춤, 강렬한 쟁과리 가락의 사물놀이 윷다리풍물을 선보인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이 출연해 흥겹게 일하는 즐거움과 풍년의 기쁨을 노래한 민요 풍년가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신시절가 등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풍류의 멋스러움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며, 공연은 전석 무료이고 전화(063-620-2324~5)나 카카오톡플러스친구로 예약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포스댄스컴퍼니, 노원탈춤제 금상 수상 쾌거

지난 4~6일 3일간 개최된 2019 노원탈춤제에 부안군을 대표하여 참가한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 포스댄스컴퍼니(대표 오해룡) & 우석대학교 태권도시범단(코치 정성문)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노원탈춤제는 '일상의 일탈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탈과 함께 전통과 현대,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노원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축제로서 60개팀 총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경쟁한 팀들의 경연 속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상금 3백만을 받게 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포스댄스컴퍼니(대표 오해룡)는 2016년부터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2017년 전국 공연장 상주단체 우수사례 선정, 2017년 전안흥타령 거리퍼레이드 대상, 2018년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대상, 2019년 대구 컬러풀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하기



2019 노원탈춤제에서 포스댄스컴퍼니가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도 한 실력 있는 단체로서 부안군민들에게 해마다 호두까지 인형, 판타스틱 앨리스 등 판타지댄스컬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포스댄스컴퍼니는 부안군 상주단체로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예술로 부안을 전국에 알리고, 또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순창군, 흠어머니산성 복원과 활용방안 위한 학술대회 열려

순창군이 흠어머니 산성 복원과 관광자원화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군은 지난 8일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흠어머니산성의 정비 복원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재)전북문화재단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황승주 군수를 비롯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및 군 의원, 전라북도의회 최영민 의원, 향토사학자, 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기조강연 △흠어머니산성 발굴조사 성과 △흠어머니산성의 정비 방안 △흠어머니산성의 보존 및 활용방안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심정보 한발대 명예교수는 '순창 흠어머니산성의 축조와 성격'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산성이 삼국시대 축조된 이후, 백제가 남원·장수·거창·합천으로 진출하여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남부군의 배후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진행된 3개의 논문 발표에서 안선호 원광대학교 교수, 고영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박스도 (재)전북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실장 등은 지난 2001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시·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굴조사와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흠어머니산성의 성격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오는 2019년 흠어머니산성의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보존정비와 복원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승주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흠어머니산성은 삼국시대 이래 순창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군사력과 교역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던 중요한 유적"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흠어머니산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적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제27회 남원 흥부제 품바 명인전 공연

10월 12일(토) 오후 3~4시 · 5~6시

10월 13일(일) 오후 1~2시 · 3~4시 · 5~6시

남원 사랑의 광장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문의: 사)전북문화진흥원
(☎ 063-288-9700)